로컬플러스

익산시, 국회상주반 운영

익산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상주반을 운영한다.

시는 국회가 예산심사일정에 들어간 지난달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직원을 국회에 상주시켜 정부예산(안) 삭감방지와 증액 등의 활동을 펼친다.

국회상주활동은 정부예산(안) 삭감 방지 및 증액, 상임위 동향 관리 및 필요 조치 강구, 실국별 국회 대응방안 마련,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등과 협조체제 강화 등이다. 국회상주반은 상임위별 지역 국회의원을 잇 따라 방문해 소스 산업화 지원센터, 고도보존육성사업 등 익산의 주요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요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방문과 설득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관련부처나 기관, 지역정치권과의 밀접한 공조를 통해 국회심의과정에서 예산이 꼭 증액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서중앙지구대, 치매노인 가족품으로인계 공감치안 구현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는, 지난 1일 "시아버지가 길을 잃은 것 같다. 3시간 넘었다. 치매가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 후 신속한 출동, 면밀한 순찰로 치매노인을 발견하여 안전하게 가족에게 인계하여 공감치안을 구현하는데 이바지했다.

한규열 경위와 김가희 순경은 신고를 받고 신속하게 신고자의 집으로 출동하여 입고나간 옷 등 인상착의를 확인 후 112상황실에 수배요청 하고 평소 할아버지가 자주 가신다는 북부시장 주변을 면밀하게 순찰했다.

수색 20분만에 북부시장 태평양 약국 맞은편 한 상가에서 인상착의가 비슷한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곧바로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보니 찾고 있던 치매노인으로 확인되어 순찰차로 집으로 귀가 시켜 가족에게 안전하게 인계하고, 현재 익산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치매 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한 인식표 무료보급"의 신청 안내했다.

/익산=장양원기자

호남·영남 주민자치위원 교류 방문

익산시 영등1동 주민자치위원과 거제시 옥포2동 주민자치위원 40여명은 지난 11월 1일 영등1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영호남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옥포2동 주민자치위원들의 방문은 지난 6월 영등1동 주민자치위원들의 옥포2동 방문에 대한 초청 방문으로 주민자치센터 간 우의증진과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병규 옥포2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앞으로 호남과 영남 간 서로 상생하고 서로의 장점을 벤치마킹해 주민자치센터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남궁주석 영등1동 주민자치위원장은 "호남과 영남의 주민자치위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류와 만남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민원공무원 친절교육 실시

군산시가 3일 민원 및 인허가담당자 등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160여명을 대상으로 민원만족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글로벌 석세스 수석강사인 이선화 CS전문강사의 '변화를 위한 CS 마인드'라는 주제로 친절교육을 실시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문제를 해결하고 수행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 효과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3F(Focus, Fact, Feel) 경청기법, 불만고객 응대 사이클, 감정관리 8단계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가한 한 민원담당자는"공무원의 친절 역량강화 및 시민중심 소통공감으로 대민행정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군산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 어린이 전담부서 '어린이행복과' 신설

군산시가 본격적인 어린이 행복도시 건설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군산시가 어린이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배경은 한국 어린이의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로 어린이행복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에 문동신시장의 의지에서 출발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어린이 전담부서인 '어린이행복과'를 신설했다.

시 단위 최초 아동친화도시 지표개발과 어린이행복예산서를 발간하고 전국 최초로 지역아동센터 친환경 급식사업을 8개소에서 31개소로 늘렸으며, 드림스타트 사업을 27개 읍면동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106개소 점검과 245개소 그린푸드존 어린이 기호식품 지도점검, 가로등, 차선도색, 보도개설시 어린이 안전위주로 공사토록 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청소년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자치권확대 조례를 비롯해 어린이행복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군산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수많은 어린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친화적 법체계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어린이관련 정책으로 기존 200개 사업과 신규 28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어린이 시청 홈페이지 구축으로 온라인 전용공간을 마련해 어린이 권리 인식 개선 및 시민 공감대 확산에 주력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군산시는 지난달 10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전국 시 단위 최초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군산시가 추진하는 어린이행복도시 조성의 가시적인 성과는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 냈다.

어린이 행복사업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던 민간단체들이 다양한 협력 사업 추진을 제의해 '국제 어린이 마라톤 대회'를 지방 최초로 개최했고, '가천그림그리기대회', '군산어린이행복전국동요콩쿠르' 등의 시민만족도가 높은 어린이 관련대회가 잇따라 추진·기획되고 있다.

또 아동친화도시와 어린이행복도시 조성의 선진사례가 되고 있다.

어린이 쉴 권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소룡동 야외수영장 개장과 생태체험, 모험활동, 숲체험, 아토피 치료 등 테마별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 놀이를 진로와 연계한 생생직업 체험 교실 등은 어린이들의 건강한 쉴 권리 환경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높이고 있다. 군산시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어린이행복도시를 완성시킨다는 야심찬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시는 안정적인 아동 정책 수행이 가능하도록 아동영향평가 조례를 11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전국 시단위 최초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인증서를 받는 단순행위를 넘어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보완 개선해 나가겠다는 군산시와 시민과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지역 일반고, 4년제 대학 진학률 하락

군산여고 제외 동고 포함 전국 100위 안에 단 한 곳도 입성 못해

군산지역 일반고등학교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군산지역 일반고등학교 대상 2016학년도 졸업생들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을 조사해본 결과, 지난해보다 진학률이 크게 떨어졌을 뿐 아니라 전국은 물론 전북에서도 상위권에 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인터넷 매체가 학교 알리미에 공시된 4년제 대학 진학률을 분석할 결과에 따르면, 지역에서는 군산여고가 338명 졸업생 중 238명이 4년제 대학에 진학 70.4%의 진학률로 전북 고교 순위 20위에 올랐다.

군산동고는 졸업생 253명 중 167명이 진학 진학률 66%로 전북 순위 33위, 군산고는 270명 중 174명이 진학 64.4%로 35위, 군산중앙여고는 347명 중 214명이 진학 61.7%로 46위, 군산영광여고가 271명 중 160명이 진학 59%로 52위, 군산제일고가 324명 중 184명이 진학 56.8%로 59위를 차지했다.

군산여고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2015학년도 진학률보다 하락했다.

2015학년도 4년제 대학 진학률을 살펴보면 군산동고가 78.8%, 군산고가 72.5%, 제일고가 69.5%, 군산여고가 67.4%, 중앙여고 66.7%, 영광여고 65.4%를 기록했었다.

지난해 군산동고는 전국 일반고 고교 중 4년제 대학 진학률 92위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동고를 포함해 군산지역 모든 일반고등학교가 전국 100위 안에 단 한 곳도 입성하지 못했다.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 이번 공시는 일반고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은 전국 고교 가운데 진학에 목적을 둔 일반고와 자공고 1617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으며, 2016학년 졸업생이 입학한 2013년의 학교유형을 기준으로 전체 졸업자 가운데 4년제 대학에 진학해 등록을 마친 자를 전체 졸업자와 비교해 분석해 산출했다.

대학별 수준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전국 일반고의 대학별 진학실적을 알 수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학교별 분위기를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전북 내 93개 일반고 1만 9630명의 졸업자 가운데 1만 1245명이 4년제 대학에 진학, 63.8%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을 기록했다.

대학진학률이 가장 높은 학교는 익산남성여고(87.5%, 전국 23번째), 이리고(83.5%), 남원 성원고(82.8%), 전주영생고(82.2%), 전주기전여고(82%), 남원고(81.3%) 순이었다.

/군산=문정곤기자

하림, 신선한 닭 육수사용한 양념장 3종 출시

㈜하림(대표이사 이문용)은 "국밥과 집밥의 열풍으로 집에서도 외식전문점의 일품요리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니즈에 맞춰 '신선한 닭 육수로 맛을 낸 닭볶음탕 양념', '안동찜닭 양념', '춘천닭갈비 양념' 등 양념장 3종을 선보였다"고 3일 밝혔다.

이 제품들은 MSG를 사용하지 않고 하림의 신선한 닭 육수로 깊은 맛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합성착향료, 합성보존료, 합성감미료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하림 '신선한 닭 육수로 맛을 낸 닭볶음탕 양념'은 국내산 마늘을 사용해 매운맛이 깔끔하며 진한 양념이 고기에 잘 배어들어 집에서도 맛있는 닭볶음탕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 하림 '신선한 닭 육수로 맛을 낸 안동찜닭 양념'은 양조간장을 사용하고 국내산 마늘과 생강, 양파를 넣어 매콤하면서도 짭조름한 안동찜닭 양념 특유의 황금비율을 완벽하게 재현했다.

하림 '신선한 닭 육수로 맛을 낸 춘천식 닭갈비 양념'은 매콤하면서도 그윽한 숯불향이 더해져 철판에서 구워 먹는 춘천닭갈비 특유의 맛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신제품은 하림마켓(www.harimmarket.com)에서 먼저 선보이며, 향후 주요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에서 만나볼 수 있다. 가격은 2,300원.

㈜하림 육가공 박준호 본부장은 "하림의 닭고기 연구 30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맛있는 닭요리를 가정에서도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황금비율의 양념장을 선보이게 됐다"며 "닭고기와 채소만 준비되면 양념장 하나로 근사한 닭고기 요리를 만들 수 있어 간편한 집밥 메뉴는 물론 손님 초대 요리로 활용해도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 선정 금강자전거길

'서천-군산 자전거 대행진' 화합 행사

행정자치부로부터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에 선정된 금강자전거길에서 군산시와 서천군의 화합 한마당이 펼쳐진다.

3일 군산시와 서천군은 '2016 서천 군산 자전거 대행진' 화합 행사를 오는 12일 오전 8시부터 금강자전거길에서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군산시와 서천군이 행정협의회에서 자전거 대행진 화합행사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된 행사로, 올해는 서천 금강하구 주차장에서 식전행사와 기념식이 개최된다.

자전거 대행진 코스는 영화 공동경비구역으로 유명한 신성리 갈대밭을 거쳐 충남과 전북을 잇는 웅포대교를 건너 고조선 공주가 머물렀다는 유서 깊은 공주산을 지나 군산철새조망대에서 금강하구둑으로 돌아오는 총 38km 구간이다.

장거리 주행이 어려운 경우 금강하구둑에서 신성리 갈대밭을 돌아오는 22km 구간도 운영한다.

참가대상은 개인 자전거와 안전장구만 있으면 제한이 없으며, 부대행사로 양 지역 특산품 직거래 장터도 열린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건설과(063-454-3632)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 서천 자전거 대행진 화합 행사가 양 시군이 화합과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자전거로 두 지자체가 하나되는 행사에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화합 행사의 의미를 빛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시와 서천군은 지난 2014년부터 주기적으로 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부터는 양 지역을 오가는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양 지역에서 각각 열던 철새축제도 '금강철새여행'이란 이름으로 공동 개최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 중앙지하차도, 18일 전면 개통

"익산 중앙지하차도"가 오는 11월 18일 전면 개통하게 된다.

익산시에 따르면 "중앙지하차도 공사가 마무리 등기구와 타일부착등 내장공사등을 마치면서 전면개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은 중앙지하차도 499m 전구간과 서부역사 진입로 500m구간이고, 현재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송학현대아파트 사거리 ~ 신업도로간 잔여 1,100m구간은 년 말 개통할 예정이다.

사업 초기, 새 지하차도의 막대한 건설사업비 확보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지난 2013년에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중앙정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국가사업으로 시행하여 달라는 진정서 들고 찾아다니던 중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근무하던 정헌율시장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19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오늘의 중앙지하차도 개통의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다.

중앙지하차도가 개통하면 일일 2만여대의 통행량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간 출퇴근시간대에 모현육교의 교통대란 해소로 원도심 교통난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중앙차도 개통을 맞아 "그동안 지하차도 건립에 앞장 선 지역국회의원, 시민유공자, 중앙부처 관계자, 건설종사자등과 오랫동안 불편을 참고 견디어 온 시민들과 함께 오는 11월 18일 개통식을 할 예정인데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익산건설을 위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KTX서부역사 진입로와 중앙지하차도는 익산의 동·서축을 잇는 새 동맥으로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KTX 익산역이 명실상부한 새만금을 포함한 호남 제일의 정착역 기능으로의 역할과 장항, 논산등 충남권까지도 아우르는 철도교통의 중심거점역으로 거듭 태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장양원기자

원광대병원, 김제 난산초등생들 재능 공연

지난 2일(수) 원광대학교병원 외래동 1층 로비에서는 환자, 보호자 및 고객들을 위한 동심들의 공연 한마당이 펼쳐 졌다.

이날 병원 생활에 지칠 환자, 보호자들의 힐링을 위해 김제 난산초등학교 60여명의 학생들이 갈고 닦은 재능 기부를 위해 원광대병원을 찾았다.

김영미 선생(교감)의 인솔 아래 원광대병원을 찾은 난산초교생들은 플룻, 카드섹션, 우산춤, 방송댄스, 외발자전거 묘기, 플룻합주 등 학교생활 틈틈이 익힌 다양한 재능들을 선 보였다.

꾸밈없는 어린 동심의 몸짓 하나하나에 아픔과 투병 생활의 지루함을 잊은 입원환우 및 보호자들의 환호와 박수갈채가 멈출 줄 몰랐다.

이번 공연은 어린 동심들이 학교생활 외 배우고 익힌 노래, 춤, 악기 연주, 댄스 등 자신에 맞는 재능들을 힘들고 지친 이웃과 사회에 나눔으로써 기부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한편 난산초교생들은 이날 공연을 관람한 환우 및 고객들에게 직접 농사지은 쌀로 만든 사랑의 떡 100인분을 일일이 전달하며 위문 활동도 펼쳐 두 배의 선행을 실천했다.

/익산=장양원기자